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의 가정.” (신16:13~15)

• 찬송: 366장, 521장

명절이 되면 우리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던 삶의 이야기들을 풀어놓습니다.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부모님의 품으로, 고향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1. 흠어져 있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은혜(13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일 년에 세 번(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특히 추석과 그 의미가 가장 맞닿아 있는 ‘초막절(=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에 모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각자의 터전에서 가정을 건사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고향과 가정으로 인도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거두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15절).

때로는 인생의 가뭄과 흉수 같은 시련도 있었고, 지나온 터널이 길고 어두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아쉬운 부분보다는,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큼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14절).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며 강조하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따뜻한 언어를 건네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며,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보고 싶었던 이들과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추석가정예배

◆ 예배 일시: 2026년 9월 25일(금)

(추석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서제일교회

담임목사 전 종 남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4길 8 ☎ 02-2646-0781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편103:1~5)

•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301장, 559장 • 대표기도: 가족 중

할렐루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며 달려온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가정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2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은 참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힘들었던 일이나 상처는 오래 기억하면서도, 하나님과 가족들이 베풀어 준 사랑과 도움은 쉽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셨던 손길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참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해요.”라는 고백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현재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삽시다(3-4절).

함께 읽은 본문 중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을 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며 현재 주신 가정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3.미래의 소망을 품고 새 힘을 얻읍시다(5절).

하나님께서 5절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독수리가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오히려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듯, 우리 가정 앞에 어떤 굵은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남은 한 해의 걸음도 우리 가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믿음 안에서 함께 비상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